

여수시 “민원후견인 도움 받으세요”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가 걱정되는 여수시민은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민원1회 방문처리해 정

팀장급 공무원 14명 민원 전과정 도우미 역할 시청 민원실 내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서 신청

와 상담을 하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 민원, 공장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한 민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후견인으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 14명이 활동한다. 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 상담부터 민원실무협의회·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관련 규정 안내 민

원처리 진행상황 지원 등 전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민원실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새마을회, EM 비누 만들기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도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명환)는 지난 11일 장동면새마을가족(협의회장 안성호, 부녀회장 이순금)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하천을 가꾸기 위한 EM 발효비누 만들기 환경교실과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 추진하였다. EM은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80여종의 미생물을 배양한 천연 성분으로 EM을 활용한 건강비누는 세정력뿐만 아니라, 보습력과 피부정화 효과까지 있어서 사용해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EM 발효액을 사용한 비누를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 환경보호와 장흥군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우리지역 깨끗한 물길 가꾸기” 실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김광재 장동면장은 “실천하는 환경 교육을 통하여 깨끗한 하천보전과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EM 발효 비누를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였다. 또한 장흥군새마을회는 생명을 살리고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2018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장흥군 전체 읍면에서 추진 중에 있다.

여수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 설치...충돌사고 예방

9월까지 3억원 투입 주요 관광지 등 56곳 설치

여수시가 최근 여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횡단도 설치에 나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9월까지 56곳에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 작업은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횡단도를 도색하고 자전거의 원활한 횡단을 위해 인도 경계석 턱

을 낮추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 주요 관광지 주변 등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횡단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자전거보험에 매년 가입해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사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사고가 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의 자전거도로는 탁트인 해안가를 따라 나 있어 인기가 높다. 길이는 오동도~돌산읍, 오동도~여지반, 관기방조제~공정마을, 죽림삼거리~가사리, 공항~달천 등 85.7km에 이른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행복 피어나는 건강마을 사업 박차

무안군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3개 마을(무안읍 성암마을, 현경면 수양촌 마을, 삼향읍 죽림마을)을 선정해 ‘행복이 피어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이 피어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건강 및 보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 참여 건강지도자를 발굴·육성해, 건강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건강 동아리를 구성하여 걷기 운동, 봉사활동 등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함께, 군은 체성분 검사를 기본으로 건강체조, 영양교육, 심뇌혈관질환, 치매, 정신건강분야

구강분야, 재활치료 등 다양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 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건강수준을 확인하고, 마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요소들은 해결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다.”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과정 개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해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총 15회로 이루어지며, 오는 7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농업 법률, 세무 상식을 포함 최근 온라인 1인 방송이 유행하는 추세에 맞춰 페이스북을 이용한 라이브방송 교육도 진행한다. 또 홈페이지 제작 마스터 등 다

양한 교육과정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540-6133)이며,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고 SNS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12일 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우수 농림축수산물 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상담회에 앞서 미국, 중국, 태국 3개국 바이어와 250만 달러(한화 28억원 상당)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하여 장흥군 농림축수산물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재)중소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7개국 10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였으며, 장흥군에서는 관내 농림축수산물 수출업체 32개 업체가 표고버섯, 차, 음료, 무산김, 병장해조류, 미역귀샐러드, 쌀, 요거트 등 60여개 품목을 출품하였다. 수출업체들은 해외바이어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상품 하나하나에 대한 장점을 정성을 다하여 설명하

였으며, 해외바이어들은 수출 가능한 품목을 염선하기 위하여 수출업체들의 상품설명에 귀 기울였다. 특히, 무산김, 표고버섯, 햇개, 해조류 등의 농림축수산물에 높은 관심을 보여 수출협약에는 별도로 235만 달러(한화 27억원 상당)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한 업체는 “상품을 만들어도 홍보와 유통 경로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해외바이어들의 수출 상담과 기술 컨설팅으로 마케팅과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